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 게재순서

총론

집터

고향집(生家)

집짓기

집과 가정

일상과 회상

빈집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상상의 집, 영혼의 집

아파트

각론

지붕

기둥

벽

문

창

방

마루

처마

굴뚝

계단

담장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알껍질을 뜯어 먹는다 방금 나온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나오자마자 놀라운 식욕으로, 그동안 나를 품어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품어주마. 자신이 뛰쳐나온 집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물오물 뜯어 먹는다 / 애벌레의 몸속으로 통째로 들어간 집, 애벌레의 몸속으로 곰실곰실 기어 다니다가, 더듬이를 쭉 내밀어보고, 양 날개를 활짝 펴보는 집, 알집 속에 수많은 새끼집을 짓고 눈을 감으리라 그렇게 집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는 집의 처소가 되어 살다 가리라 ///

-손택수⁽⁶²⁾ '집'

어서 어서 자라라 애벌레야 / 걸리적거리는 저 잎사귀들 어서 먹어치워 / 사랑은 잎사귀란다 ///
어서 어서 날개를 달아라 애벌레야 ///
내 애인의 집은 너무 높다 / 그러니 너는 날개를 달아야 해 날아올라야만 해 / 저 구름 위의 집, 말랑말랑한 내 애인의 집에 / 나는 언제쯤 당도할까 ///
나는 상상한다 애인의 집에, 구름 위에 / 꽃밭을 만들어 놓을까 / 나비 한 마리 날려 보낼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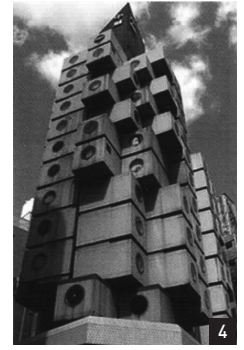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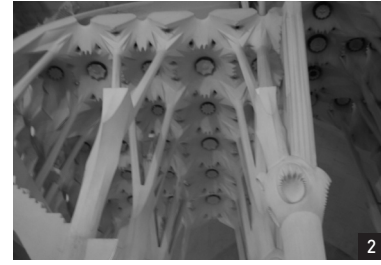
-이나명⁽⁶³⁾ '구름 위의 집'

텃새들은 물론 제비 같은 철새도 나뭇가지와 풀로 집을 짓는다. 나비도 날개를 달기 전에는 고치란 집 속에 있다. 처음 알에서 부화하여 자신이 나온 알껍질을 먹는 애벌레를 보며, 시인은 '그렇게 집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는 집의 처소가 되어 살다가련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애벌레가 나비되고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한다. 부조리한 인간 사회를 거미집을 빚대 파헤치기도 하고 사과상자가 사과의 집이 되어, 부조리로 짓밟힌 꿈에 아우성을 치기도 한다.

건축사들도 동물과 식물을 소재로 한 집들을 설계한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 있는 쿤트하우스는 외계인의 집이란 별명이 붙기도 하지만 북어 같기도 하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외관도 그렇지만 특히 내부는 가지가 있는 나무와 꽃을 그대로 구조와 마감에 응용하였다. 적당히 쌓아놓은 사과상자를 연상하게 되는 건축도 있다.

62) 담양, 「호랑이 발자국」

63) 강원 원주, 「그 나무는 새들을 품고 있다」, 「왜가리는 왜 몸이 가벼운가」



1. 쿤스트하우스 그라츠(Kunsthau Graz) 오스트리아. 해삼이나 복어 같기도 한 피터 쿡의 작품. 예술회관으로 쓰인다. 사진출처:건축콘서트(박영태)에서 전사
2. 가우디(Gaudi)의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내부. 가지가 있는 나무와 꽃. 가지는 장식이 아닌 구조재다.
3. 새둥지 모양의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4. 외구로카와 기쇼의 나가킨 캡슐타워. 사과상자를 쌓아놓은 것 같다.

거미는 몸을 풀어 선을 만들고 / 발자국도 없이 선 위를 오가지
만 / 한 번도 줄에 걸리지 않는데 / 나는 아니었다 / 내가 만든 인
연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 거미는 가로세로 선을 엮어 / 소리
없이 면을 만들지만 / 사각형의 함정에 빠진 적이 없는데 / 나는
아니었다 / 내가 만든 벽 안에 머무는 시간이 / 지난밤 울부짖던
태풍에 / 콘크리트 전봇대가 한쪽으로 쓰러졌어도 / 가늘게 떨리
던 거미의 집은 / 무너지지 않았다

-송중찬⁶⁴⁾ '거미의집'

어느 저문 날 / 어느 후미진 뒷거리를 지나다가 /// 잘 익은 사
과의 금빛 나는 시간을 쏟아버린 / 빈 사과상자의 벽을 보았다.
/ 한 백 개나 이 백 개쯤으로 쌓아올린 / 빈 사과상자들의 / 허기
진 아우성을 들었다 / 속을 다 빼앗긴 껍데기들의 아우성이 / 속
을 다 빼앗긴 내 속을 울리고 / 상한 사과들이 내 속에서 / 독하
게 발효하여 / 내 생을 산화(酸化)시키고 있었다 /// 아직 덜 익
은 꿈도 상자에 갇혀와 / 혈값으로 팔려나갔으리 / 온전한 꿈도
꿈끼리 부딪혀 상해서 버려졌으리 / 외중에서도 끝까지 온전한
꿈들은 / 또 어느 탐욕스런 이빨들에 / 아삭아삭 씹혔으리 ///

-김여정⁶⁵⁾ '사과들이 사는집'

상상의 집

저녁의 목수인 별이 집을 짓는다 / 송글송글 맺힌 이마의 땀방
울을 푹푹 흘리며 / 거미처럼 착 달라붙은 채 제 몸의 황금빛 실을
/ 뽑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다 // 기둥하나 세울 한 평의 흙
도 없는 허공에 /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있다니 // 그러나
그 집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의 눈빛 속에 지어진다 / 눈빛은 저녁
의 목수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토지이다 /// 저녁의 목수인
별이 또다시 집을 짓는다 / 입주를 희망하는 자의 귀에만 들려오
는 / 저 푹푹 푹푹 못 박는 소리 / 저 찌걱 찌걱 톱질하는 소리.

-함명춘⁶⁶⁾ '저녁의 목수인 별'

울산바위 꼭대기에는 / 별들의 집이 있다 /// 어느 날 집 떠나/
해지고 어두우면 // 그곳에 가 자고 싶다

-이상국⁶⁷⁾ '민박'

어릴 적 여름방학 때, 모깃불 피워 놓고 밀짚방석에 누어 하늘
을 보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이 철링대는 별들, 그 별들을 연
결하다보면 북두칠성은 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오각형
집이 되기도 하였다. 그 아름다운 정경을 보고, 그리는 자만이 향
유할 수 있는 눈빛 속의 집, 설악산 울산 바위에 별들의 집이 있
다면 건축사는 바위 틈새에 집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낭
만 속에 머물고 싶은 것은 마음뿐, 오늘과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
에서 겪는 정신적 혼란은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기
에 이도 저도 아닌 사이 속 막막한 허공에 집을 세운다.

비어 있는 곳에(空間) 비어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건축
이다. 노자(老子)는 말한다. '문과 창으로 만든 방은 안이 비어있
기 때문에 방으로 쓸모가 있다.'

맥주병과 오프너 사이, 깡통과 깡통 따개 사이, 대구와 대구포
사이, 땅콩과 땅콩 껍질 사이, 거기가 내 자리일까. /// 신념과 타
협,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 그리고 양심과 훼손 사이, 거기 웅
크리고 있는 남루 하나.

그리고, 다시 image와 symbol, metaphor와 irony, alegory와
paradox 사이, 시와 시론 사이, 백묵과 지우개 사이, 컴퓨터와 프
린터 사이, 온라인 통장과 급여 명세서, 윤군과 김군 사이, 그 막
막한 허공에 세운 작은 집 하나.

-이건칭⁶⁸⁾ '境界人的 집'

내 귓속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고, /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밀려난
작은 소리들이 / 따각따각 걸어 들어와 / 어둡고 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 슬픈 골목이 있고, /// 얼어터진 배추를 녹이기 위해 /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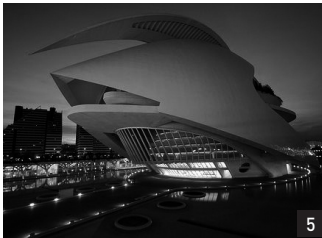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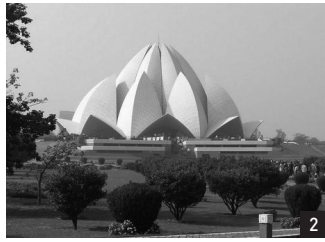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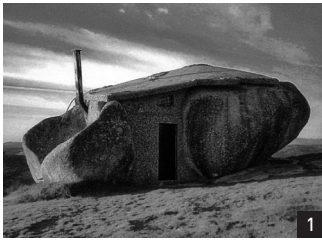
64) 1966. 고희. 「그리운 막차」

65) 1933. 진주 「바다에 내린 햇살」, 「사과들이 사는집」 외

66) 1966. 강원 춘성.

67) 1946. 강원 양양. 「동해별곡」, 「뽕을 적시며」, 「국수가 먹고싶다」 외

68) 1942. 경기 이천. 「굴참나무 숲에서」, 「반구대 암각화 앞에」



1. 카사 도 페네도의 바위집-포르투갈
2. 바하이교의 연꽃 사원(Lotus Church)- F.Sahba 인도, 뉴델리
3. 달팽이집-불가리아소피아
4. 내려앉는 새 모양의 밀워키 예술관(Milwaukee ArtMuseum)-미국 위스컨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S.Calatrava
5. 돌고래 모양의 이나 소피아 예술궁전 -스페인 발렌시아
6. 타지마할은 죽은자의 안식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

한 몸 기꺼이 태우는 / 새벽 농수산 시장의 장작불 소리가 있고 / 리어카 바퀴를 붙들고 늘어지는 / 빌어먹을 첫눈의 신음소리가 있고 / (약) 한 땀 한 땀 나를 꿰어내던 / 겨울비의 따가운 박음질 소리가 있고 /// 내 귓 속 막다른 골목에는 / 소리들을 보호해주는 작고 아름다운 / 달팽이 집이 있고, / 아주 가끔 / 따뜻한 기도 소리가 들어와 묵기도하는 / 작지만 큰 세상이 있고.

-고영⁶⁹⁾ '달팽이집이 있는 골목'

시인들에게 귓속 달팽이관도 집이 되고 골목이 된다. 삶의 고달픈 소리뿐 아니라 따사로운 기도소리로 삶을 복돋우는 집 그리고 정착하지 않는 간이역은 지나치고 잊혀지는 시간 위의 집이다. 기차는 이 간이역에서 서지 않는다 / 오직 지나쳐지기 위해서 있는 낡은 역사 / 무언가 우리 생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표시 / 시간 위의 집

-김진경⁷⁰⁾ '시간 위의 집'

영혼의 집

그대 떠날 때 / 내 가슴 반은 무너지고 / 남은 가슴 반에 그대를

묻었으니 / 나는 그대의 집이노라 / 살아서는 멀리 헤어져 서로 떠돌고 / 한구석 문고리 잠겼던 마음 / 죽어서 남김없이 다 풀어 놓았으니 / 무시로 빈 가슴 문 열고 들어와 편히 쉬어라 / 그 산 골짜기 외진 길 굽이 돌아가면 / 그대 먼저 가서 터 닦아 세운 집 / 우리 생애 마지막 집 한 채 거기 있으니 / 내 희망 또한 거기 쉬리라 / 무너진 가슴 반은 이미 그곳에 있으니

-홍윤숙⁷¹⁾ '가을 이별'

삶은 언제나 죽음을 동반한다. 죽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한구석 문고리 잠겼던 마음'까지 풀어 놓는다. 마치 분합문을 열어 올리면 분리되었던 방과 대청 마루가 한공간이 되는 한옥과 같다.

사랑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연인을 그리며 그와 함께 하고픈 애절한 노래들이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진다.



경복궁 경회루 -외진, 내진, 내내진의 3층 구획으로 된 2층, 문을 열면 모두 한 공간이 된다.

이 넓은 세상 / 우주 한 가운데에 / 수많은 무리가운데서 / 그대라는 이름의 / 마음하나 새겨두고 / 이토록 가슴 아파하는 것은? / 하늘의 별, 아득하기 때문인가 / 지상의 바람, 흔들림 때문인가 / 아, 신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 내 슬픈 영혼의 집이여!

-이영춘⁷²⁾ '영혼의 집'

너는 빈집 같다 / 한 번도 사람이 살아본 적 없는 / 이제 막 허공중에 세워진 아파트의 방 한 칸 / 나는 거기에 도배를 하고 / 아름다운 가구를 들고 싶다 / 벽에는 가득히 수족관을 세우고 / 바다를 띄우리라 / 베란다에는 망원경을 놓아 / 날마다 별들을 불러도 보리라 / 어느 먼별에 선 듯 / 너는 생각이 깊은 눈으로 / 나를 바라본다 / 거기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 오라

-김용길⁷³⁾ '너와 나 사이의 빈집'

너를 두고 나온다 /// 이제는 내가 나가고 없는 집 /// 이제야 비로소 나와 더불어 이불을 / 들쭉시며 뜯 눈으로 지새지 않아도 되는 집 / 몸에 마음까지 켜진 불 다 끄고 / 잠들 수 있는 집

-함명춘 '집'

먼 옛날 강화도에 살았던 어느 족장은 / 돌 세 개를 지상에 세워두고 사라졌다 / 두개의 뿔돌 위에 수 십 톤의 넓적돌로 지붕을 올린 / 시간의 집 / 우직한 석공이 단단한 구름에 돌을 심어 / 수 천 년, 땅속깊이 뿌리를 내린 / 오래된 돌집에서 / 그를 만난다

69) 1966. 안양.

70) 1953. 충남 당진. 「갈무리의 아이들」, 「광화문을 지나며」, 「그림동화-목수들의 전쟁」

71) 1925. 평북 정주. 「마지막 공부」, 「내안의 광야」

72) 1941. 강원 평창. 「봉평 장날」, 「들물」

73) 제주 서귀포. 「빛과 바람의 울레」

/// 들개처럼 별판을 쏘다니 다리 / 완강한 근육이 불거져있다 / 작살을 움켜 쥔 손가락, 물갈퀴가 돌아있다 / 짐승털을 두른 여문 어깨에 / 어둠을 노려보는 짐승의 눈알이 박혀있다.///토기와 석축을 빚으며 돌이 된 손 / 별판을 달리던 / 다급한 북소리, 뿔나팔 소리 / 개펄 위에 쓰러진 술한 죽음도 헤아려 본다 /// 고분의 벽화 속에 살던 / 한 사내 / 수 천 년을 건너와 / 문짝 떨어진 돌무덤에 누워있다.

-마경덕⁷⁴⁾ '강화 고인돌'



강화 고인돌

한국은 세계적인 고인돌 국가이다. 옛사람의 무덤인 고인돌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다. 큰 고인돌일수록 세력이 큰 족장의 무덤. 이는 사자를 위한 건축물로 발전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고구려 장군총, 인도의 타지마할, 이 모든 것들이 무덤 건축이다. 하지만 빛에 쫓겨 한 가족이 모두 투신한 영랑호에는 시인이 지어준 물 속의 집도 있다. 석유부국의 수도 두바이에 건축한 수중호텔보다 더 아름다우리라.



두바이의 수중호텔 하이드로 폴리스 객실 투시도-아랍 에미리트

한국의 세계적인 고인돌 국가이다. 옛사람의 무덤인 고인돌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다. 큰 고인돌일수록 세력이 큰 족장의 무덤. 이는 사자를 위한 건축물로 발전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고구려 장군총, 인도의 타지마할, 이 모든 것들이 무덤 건축이다. 하지만 빛에 쫓겨 한 가족이 모두 투신한 영랑호에는 시인이 지어준 물 속의 집도 있다. 석유부국의 수도 두바이에 건축한 수중호텔보다 더 아름다우리라.

그해 겨울 영랑호 속으로 / 빛에 쫓겨 온 세른세살의 남자가 / 그의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던 날 / 미시령 넘어온 장엄한 눈보라가 / 네 쥘레의 신발을 이내 묻어주었다 // 고니

나 청둥오리들은 / 겨우내 하늘 어디선가 곁 고운 물무늬를 물고 와서는 / 뒤통거리며 내렸으며 / 때로 조용한 별빛을 흔들며 / 부채를 청산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 인근마을까지 들리고는 했다 /// 그러나 그 애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면 / 지금도 눈물이나의 뺨을 적신다 // 그래도 저녁마다 / 설악이 물속의 집 뜨락에 / 아름다운 놀빛을 두고 가거나 / 산 그림자 속 화암사 중들이 / 일부러 기웃거리다 늦게 돌아가는 날이면 / 영랑호는 문을 닫지 않는 날이 많았다 // 그런 날 물속의 집이 너무 환하게 들여다보였다

-이상국 '물 속의 집'

아파트

서양 사람들은 한국의 아파트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한다. 삶의 질로 볼 때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제일 좋다. 다음이 2호

나 4호 등 연립주택이고 아파트는 가장 열악한 형태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래위층간의 소음이나, 공동정원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행동의 제약을 감수하고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언제나 틀기만 하면 온수를 쓸 수 있고, 문만 잠그면 온가족이 해외여행을 하여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우리의 단독주택지 면적은 넓은 땅을 가진 그네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기에 그들의 잣대로 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개발은 '멀쩡한 집을 때려 부수고 / 빌라를 짓고 오피스텔을 짓는 서교동 '옛길'에서도'어떻게 용케 살아남은 벽오동 한그루'가 안쓰럽고 '담 모퉁이에 안쪽 웅색하게 서서/담벼락위에 꽃힌 쇠꼬챙이에 찢리며 / 가지는 얼마쯤 전 깃줄에 걸렸지만 / 그래도 제빛갈로 푸른 벽오동⁷⁵⁾'이 새삼 대견하여, 상처받은 인생도 이 벽오동에서 위로와 희망을 본다. 그렇지만 계획적인 재개발도 서민들의 아픔으로 다가온다.

/// 북이현동에는 천개의 빈집이 있다 / 천개의 지붕 위로 천개의 달이 지고 천개의 해가 떨어진다 / 천개의 낮과 밤이 생겼다가 무너져 내린다 / 천개의 하루가 하루아침에 살지고 천개의 아름다운 도착이 /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천개의 바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 이웃은 소식을 끊은 지 오래 누구도 이곳을 즐기지 못한다 / 가슴을 천갈래로 찢어놓았기 때문이다 / 한때 누구보다 이 골목을 잘 알던 개와 고양이 /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한다 다리달린 것들은 모두 쫓겨났다 / 까치와 라일락과 천 개의 구름, 날개 있는 것들은 모두 쫓겨났다 / 어둠에 휩싸인 언덕이 순환 가축처럼 엮드린다 / 증 장비가 그 언덕머리를 베어낸다 / 모가지를 단 칼에 날리지 않고 천 번을 내리친다 / 천개의 관이 비탈길에 널려 있다.

-박지웅⁷⁶⁾ '천개의 빈집'

인부들이 몰려와 땅을 파고 아파트나무를 심은 것은 / 고고입학 때였다 맨 먼저 커다란 파일이 내려가 / 지하 깊은 곳에 뿌리를 박았다 / 모세혈관 같은 철근들이 묶이고 / 제법 단단한 각질이 덧대어지기도 했다 /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을 광합성하여 / 자고나면 조금씩 높아지는 아파트, / 그 위를 크레인이 내려다보며 키를 재곤 했다 / 건물 층층마다 우리가 끼워지자 가끔씩/저녁 해가 모서리에서 붉게 터졌다 / 어느 날부터는 커다란 광고가 이 파리처럼 매달렸다 /분양사무실 칠판은 곧 수확할 열매를 위해 / 씨방의 규모를 세세하게 적어두었다 / 이웃학교 녀석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 공사 중인 아파트로 도망쳐 숨은 적이 있었다 / 미로 같은 곳을 빠져나와 돌아보니 /아직 꽃피지 않은 아파트는 외로워보였다 / 너무 큰 꽃은 그들이 깊다고 하는 것 같았다 / 주먹의 상처가 가리워질 무렵 / 아파트 외벽에 밝은 색이 입혀졌다 / 고

74) 전남 여수. 「글러브 중독자」, 「신발론」

75) 윤재철 「벽오동」

76) 1951. 부산. 「너의 반은 꽃이다」

층 사다리차가 올라가 해바라기씨 같은 짐들을 / 들어 놓았고, 그 날부터 엘리베이터가 바르게 펌프질되기 시작했다 그런 밤마다 / 밝고 노란 열매들이 매달렸다 단지 돌리는 낙과처럼 기로들이 즐비했다 // 아파트가 해를 가린 즈음부터 나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우리가족은 아파트가 자라지 않는 외곽으로 / 이삿짐트럭을 몰고 꽃피러 떠났다.

-윤성택⁷⁷⁾ '아파트나무'

베란다 너머 신축 중인 공사장을 내려다본다. / 지리한 공사도 얼마 후면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 봄이면 싹 내밀던 저곳 수천의 방들은 층층마다 / 사각의 얼굴로 들어설 것이고 새로운 입주자들의 생활은 / 보람으로 분주해질 것이다 그 곳에 별, 바람, 햇볕, 구름 / 비 눈 신문과 광고지와 인터넷과 뼈뺀 드라마와 비디오 / 등속이 다녀갈 것이고 크고 작은 인연들이 다녀갈 것이다 / 농작지였던 저곳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작은 새롭되 / 끝은 지리멸렬한 삶이 낙서처럼 어지러울 것이다 / 방은 그렇게 추하게 늙어가면서 무수한 흔적들 / 그 무슨 훈장처럼 주렁주렁 온 몸에 달고 있을 것이다.

-이재무⁷⁸⁾ '아파트 신축공사장'

위의 시들은 새로운 아파트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이로 인하여 생업터를 떠나 도시 외곽으로 떠나야만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이란 설계될 때 임신하고, 지어질 때 태어나고, 서 있을 때 살아있고, 나이 들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이 사람과 같은 이치이다. 건축물은 창문이라는 입으로, 공기조화시스템이라는 폐를 통하여 숨을 쉬는 것이다. 건축물은 또 파이프라는 핏줄과 정맥을 통하여 액체를 순환시키고, 전선이라는 신경시스템을 통하여 신체의 모든 부분에 메시지를 보낸다. 건축물이란 피드백 시스템^{feed back system}이라는 두뇌를 통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조건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파사드^{facade}라는 피부에 의해 보호되고, 이 파사드는 기둥 보 슬래브라는 뼈대에 의지해 지지되고, 이 건축물의 뼈대는 그 기초위에 얹혀 의지하고 있다. 마치 인간의 신체 같아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나름대로 자기네의 생을 실컷 즐기고 나서 죽게된다.”⁷⁹⁾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 마포아파트. 연탄으로 난방하였다.(1970년)

한국에 아파트가 처음 건립된 것은 일제치하였으나 본격적인 아파트시대는 1960년대이고, 서울시장은 서민들에게도 편리한 아파

트를 제공하고 판잣집으로 뒤덮인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하여 시민아파트를 의욕적으로 지어 분양하였다. 그러나 졸속으로 지은 시민아파트는 지은 지 3개월 만에 33명이 죽고 38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픔을 시민에게 안겨줬다. 김정환⁸⁰⁾의 시 '와우 아파트' 그대로이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 희망이 산산 박살난 듯 / 와우 아파트는 무너져 내린 다음에도 / 와르르 소리를 여전히 외치고 / 와르르 소리는 그 밑에 다다다닥 붙어 있던 / 판잣집들을 아직도 덮치고 있었다 ///”

미루나무 꼭대기에 / 까치부부가 / 열기설기 지은 / 막대기 집 // 별들이 / 설계도 없이 / 어림짐작으로 지은 / 육각형 집 // 태풍에 떨어졌다는 소식 없다 / 장맛비에 떠내려갔다는 소식 없다 ///⁸¹⁾ 까치는 바람 부는 날에만 집을 짓는다. 가장 악 조건에서 집을 지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 불감증과 욕심을 별과 까치를 빗대어 비웃고 있다.

황순원은 빌딩을 보고 ‘하모니카를 / 불고 / 싶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획일화된 아파트에 60%의 한국인들이 종든 싫든 살아가고 있다. 시인들이라고 뽀족한 수 없다보니 “1층 2층 3층 / 맨 꼭대기 20층까지 // 사람들이 / 아침마다 / 서랍장을 열고 나왔다가 //밤이면 / 다시 서랍장 안으로 들어가서 / 차곡차곡 쌓인다 / 층층이 쌓여 잠드는 곳⁸²⁾”

“굴뚝같은 디지털 골목,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에서 12층에서 내려오는 동안 / 거의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나날이죠 / 굴뚝을 달리는 / 굴뚝 연기 같은 나를 / 굴뚝 연기 같은 그들이 / 알아챌 수 없으니까요 // 그러니 나, 굴뚝으로 오르내리는 다락방의 천사이거나 / B1 B2 B3 지하동굴의 순교사입니다 / 실체 없는 2106 / 6012 독방 수인(囚人)⁸³⁾”으로 살고 있다.

이런 아파트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들이기에, 가엽고 안타깝다. 그렇기에 문득 문득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 / 이 높고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 조심조심 살아가시는 당신을 보면 / 슬픈 생각이 듭니다 /// 무덤처럼 고요한 14층 7호 / 당신은 창을 열고 숨을 쉬어보지만 / 저 낮선 하늘 구름조각 말고는 / 아무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 어디 나가 걸어보려 해도 / 깨끗한 낭하 아래론 까마득한 낭떠러지 /// 오늘은 이 도시 고층아파트의 꼭대기가 / 당신을 새처럼 가둘 줄이야 어찌 아셨겠습니까 ///

-이시영 '어머니'

77) 1972. 보령.

78) 1958. 부여. 「선달그믐」

79) Mario Salvadori(1907-97)황주영 역

80) 「백두산으로 날아간 된장잠자리」

81) 정진숙, 「튼튼한 집」-아동문

82) 김은영, 1964. 「아파트1」-아동문

83) 이사라, 1953. 서울. 서울산업대 문창과 교수. 「수직골목」, 「시간이 지나간 자리」, 「생가」-카타콤베 수록. 「히브리인의 마을 앞에서」, 「미학적 슬픔」, 「숲속에 묻는다」

벌써 오래 되었다. / 부엌 옆에 마구간 달린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당도 굴뚝도 없는 아파트에 와 살며 / 나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다 // 이제는 그 부드러운 풀이름들도 거반 잊었지만 / 봄 들판에서 새 풀이 무성할 때면/우리 소가 생각 난다 / 어떤 날 저녁에는 / 풀 짐 지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늦는다고 /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우는 소 울음소리도 들었다 // 이제는 그 소도 아버지도 다 졸업했다고 / 이 도시의 서민이 되어 산 지 오래인데도 / 우리 소가 잘 먹던 풀밭을 만나면 / 한 짐 베어지고 / 그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상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다'

“너의 좁은 아파트 한 구석 / 시든 꽃잎 하나 헉! 소리를 내며 / 우글쭈글해진 모노룸 마루 위에 눕는 소리 들린다.

—땅에 내려가고 싶다 / 누가 흑흑 흐느끼기 시작한다.”

-강은교⁸⁴⁾ '꽃잎'

돌아가고 싶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꽃이나 나무에게도 아파트는 떠나고 싶은 곳이다. 그래서 꽃잎은 떨어져 울고, 나무는 서서히 죽어간다.

결국 고무나무는 죽었다 /// 그 어린 열대 식물은 아파트의 공기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잎이 누렇게 뜨면서 나무는 살결마저 검게 변해갔다 그 나무를 통해 내가 꿈꿀 수 있는 인도차이나는 없었다 먼저 아이들이 못 견뎠다 새벽이면 잠깐 생기를 찾는 듯했으나 퇴근 무렵이면 어김없이 잎들이 졌다 그 나무가 완전히 죽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

-송재희⁸⁵⁾ '별을 찾아 몸을 별로 바꾸는 이야기가 있다'

아래의 시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야 집에 오는 직장인들, 특히 문만 닫으면 이웃과 단절되는 이파트족에게는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경험이라 여길만하다. 마치 전후문학전집에서, 술에 취해 똑 같이 지어진 연립주택의 자기 집 대신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아내를 품는 실수를 하는 것과 같이.

/// 나 대낮에 꿈길인듯 따라갔네 / 점심시간이 벌써 끝난 것도/사무실로 돌아갈 일도 모두 잊은 채 / 희고 아름다운 그녀의 다리만 쫓아갔네 / 나 대낮에 여우에 홀린 듯이 따라갔네 / 어느덧 그녀의 흰 다리는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 / 공동묘지 같은 번두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네 / 나 대낮에 꼬리 감춘 여우가 사는 듯한 / 그녀의 어둡한 아파트 구멍으로 따라 들어갔네 / 그 동네는 바로 내가 사는 동네 / 바로 내가 사는 아파트! / 그녀는 나의 호실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 문을 열고 들어서며 경계하듯 나를

쳐다봤다 / 나 대낮에 꿈길인 듯 따라갔네 / 낮선 그녀의 희고 아름다운 다리를

-장정일⁸⁶⁾ '아파트 묘지'

아세요 그대 아침 운동 페달 돌리고 있을 때, 아직 곤히 잠든 아래층 여자 아랫배 위를 허덕거리며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 아세요 잘 익은 생선 등으로 내려꽂히는 당신 젓가락, 못다 푼 숙제를 향해 었드린 아래층 아이 등골을 쭈시고 있다는 사실, /// 아세요 칫솔질하는 당신 면상으로 위층 그 위의 위층으로부터 개숫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층층이 포개져 헛구역질 아내 위에 그 위층 그 아래층 아내와 남편 사이에 겹겹이 포개져 있다는 사실, 이렇듯 얼굴도 모르는 위층 아래층을 향해 오르가슴은 달리고 있다는 사실, 잘 차려진 그득한 행복 위로 누가 자꾸 가래침을 뱉고 있다는 사실

-최영철⁸⁷⁾ '아래층 여자 그 아래층 남자'

옆집 남자가 죽었다/벽 하나 사이에 두고 그는 죽어 있고/ 나는 살아 있다 그는 죽어서 1305호 관 속에 누워 있고 / 나는 살아서 1306호 관 속에 누워 있다 // 우리는 거울처럼 마주 보고 / 마주 보고 드러눕고 마주 보고 일어나고 / 마주 보고 맨몸에 물을 끼얹으며 / 마주 보고 확성기를 틀고 마주 보고 팬터마임을 하고 / 마주 보고 대포를 겨눈 채 // 오늘 나는 옆집에 문상가지 않는다 / 그와 나는 호수(號數)가 다르니까 /그는 어젯밤 깊은 밤 죽어서 / 빛은 발을 거울 밖으로 쭈욱 내밀었지만 / 그는 어젯밤 깊은 밤 죽어서 / 병풍 앞 공손히 조아린 자식들/친구들을 보여주면서 웃어 제쳤지만 / 오늘 나는 문상가지 않는다 그 남자의/자식을 봐도 모른 채 한다 우리는 / 서로 호수가 다르다

-김혜순⁸⁸⁾ '남과 북'

벽을 마주한 아파트를 휴전선에 대치한 남북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로 삭막한 아파트의 현실. 그러나 아파트라고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한 한국의 아파트는 우리고유의 온돌과 함께 제3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으며, 선진국들도 주목할 만큼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건축사들에 의해 아파트의 환경은 진화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집에 대한 동시 중 일부는 “정연복의 ‘집에 관한 시모음’에서, 아파트 시중 7편은 ‘안락과 죽음의 분열증적 공간, 아파트-기획특집 시인의 집, 시숙의 집’-(최재봉)을 참조.

84) 1945. 함남 흥원. 「허무집」, 「빈자일기」, 「어느 별에서의 하루」
85) 경북영천. 「얼음시집」, 「살레시오네 집」, 「진흙얼굴」
86) 경북 달성. 「햄버거에 대한 명상」 소설-아담이 눈물 때, 내게 거짓말을 해봐, 너희

가 재즈를 민느냐, 문만 닫으면 외부와 단절된 공간 그래서 묘지로
87) 1956. 경남 창녕. 「영경귀」, 「찢러본다」,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
88) 1955. 경북 울진. 「슬픔치약 거울크림」, 「핑크 립 푸른 얼굴」, 「당신의 첫」